

장애인 학대 동영상까지...조회수가 뭐길래?

돈벌이 위해 막가는 유튜브 지적장애 형제 비닐랩 씌우고 폭행·금품 갈취 등 인권유린 홍가 체험·모방 범죄까지 활개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브(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줄임말)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범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튜브들이 개인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해남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가혹 행위 동영상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학대한 혐의이다.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고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빼돌렸고, B씨 형제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함께 함께 여행을 갔는데 B씨 형제의 여행비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는 등 가혹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지역에서 유튜브이자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는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알려,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비난받게 했다. 재판부는 "단지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

서적 학대를 자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광주 서구에 있는 버려진 요양병원에서 '홍가 체험'을 방송하던 유튜브 C씨가 진짜 시체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홍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지 않아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병원 건물 둘레로 철망이 쳐져 있었지만 철망을 넘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간 C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비어있는 병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올 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할때도 일부 유튜브들이 조두순 집 앞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조두순을 태운 호송 차량을 파손하거나 그가 사는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서로 다투기까지해 결국 유튜브들은 공무원집행해 등의 혐의로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유튜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

는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튜브 수익은 광고와 '슈퍼챗', 그리고 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고 수익은 영상을 올려 놓으면 유튜브가 조회수에 따라 정산해 주고 슈퍼챗은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시청자와 라이브로 소통하는 와중에 시청자가 직접 소정의 금액을 유튜브에게 직접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결국 조회수가 광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들로 인한 모방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옛 국군 광주통합병원(5·18 사적지 제23호)에서 공포체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우식 참여자21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 적절한 견제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 파사드' 대학 2곳과 콘텐츠 공동개발

광주 남구가 백운광장 주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2곳이 이 사업의 핵심인 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문화광장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남구와 광주디자인진흥원, 조선평 LINC+ 사업단, 광주대 산학협력단은 침체된 백운광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기존에 차량 통행 위주의 광장 개념에서 벗어나 백운광장을 명실상부한 문화광장으로 조성, 남구 종합청사 외벽을 통해 빛의 향연인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해 유동 인구가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조선평대와 광주대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하거나, 남구 주민들의 삶의 행복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은 공공디자인 연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광주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에서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로 해 문화광장으로 변신을 꾀하는 백운광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협약 기관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40개 대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연말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올해 연말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 340여곳의 졸업·재학·성적 증명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아이엔텍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으로 340여개 대학의 재학·졸업·성적 등 증명서 15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이후 나머지 대학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이런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증명서 발급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급'으로 설정하면 된다. /연합뉴스



노래방 업주들 "생존권 보장하라" 26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관계자들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정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중징계 인사처, 성범죄도 처벌 강화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내부정보 이용 측제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국무총리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성 비위 관련 징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강도를 더 무겁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을 성폭력·비위 유형으로 새로 규정해 최소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지금까지는 '기타 성폭력'의 범주로 분류됐으며 최소 징계수위도 감봉보다 낮은 편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2차 가해 역시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제까지 이런 비위 사례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이 정지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연합뉴스

올 광주·전남 임금체불 748억원...지난해 비해 27% 늘어

같은 기간 전국은 15% 줄어
광주노동청 집중 단속 나서

'코로나19' 2년째인 올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에서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된 금액은 총 748억원(광주 320억원·전남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적으로는 15.6% 감소(9800억원→

8273억원)한데 광주·전남은 27.2%증가(528억원→748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는 게 광주노동청의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지도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

무(평일 오전 9시~밤9시, 휴일 오전 9시~오후6시)도 실시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한도(사업주당 1억원, 노동자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한시적(10월22일까지)으로 용자 이자율을 1.0%p인하해준다. 체불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도 생계비 용자(1인당 1000만원) 금리도를 같은기간 0.5%p 인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임승순 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조건부)
-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 부동산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정책자금(햇살론)
-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경제조한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전현숙 국법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특고개역 지정

KT서광주지사
무등시에 연구원

농성
빛어울체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특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